

# 2020년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탄력

### 나주 ICT 융복합지식산업센터 등 7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보성 복합커뮤니티 센터·완도 실내체육관 건립 재검토 결정

2020년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완도 해양치유센터와 나주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반면,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완도 실내체육관 건립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시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전남도의 9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해 조건을 충족시킨 뒤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이들 사업은 '조건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제수목비엔날레의 경우 2개 권역으로 나뉘어 치러지는 데 따른 접근성, 편의시설 개선 등 행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지역 관광 행사로 머물지 않도록 전시내용의 예술성·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달아 추진토록 했다.

전남도는 심사 통과에 따라 수목 비엔날레 사무국 구성, 총감독 선임, 사업 예산

확보 등 개최 준비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국비 등 320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7596㎡) 규모로 치유센터를 건립해 치유 관광객의 건강 증진 및 국내 해양치유관광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완도군 구상이다.

완도군은 구제적 시설·인력운영계획과 이용객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세부 홍보방안 등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충족시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주 혁신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지역 강소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도 '조건부'로 의결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

너지 ICT 융복합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지상 5층·지하 2층(연면적 1만 4200㎡·261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 여수시립박물관(연면적 6300㎡·285억),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초소형전기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기술개발(영광·344억),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228억), 광양세풍산단-광양역간 연결도로 개설사업(380억)도 조건부로 의결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오는 2022년까지 39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하려던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은 사업계획 조정 필요성 등으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완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156억)도 재검토 결정을 받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대회 식품사고 없는 행사로”

### 식음료안전 추진센터 운영

광주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식품사고 없는 안전한 국제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식음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4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10개 반 50명)이 수영대회 관련 시설 주변 음식점 등 4627곳을 총 8회 위생관리 컨설팅과 사전 위생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불량업소 314곳은 현장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자율 위생 능력을 높이고, 극히 불결한 업소 56곳은 행정 처분했다.

이와 함께 수영대회를 전후한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7개 반 14명으로 구성된 시·구 지역 식음료안전 추진센터 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상황반은 식중독 관련 발생 사항 접수, 현장 출동, 관련 기관 식중독 발생 신속 보고·전파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수영대회 기간에 공무원 101명과 소비자감시원 40명으로 식음료안전관리 검사관을 운영한다.

검사관들은 선수촌 식당, 미디어촌 식당, 선수촌, 경기장, 본부 호텔(내), 지정숙소, 기숙사 주변 등 17개 식품취급 시설에서 식재료 구매, 유통경로, 조리, 위생 분야 등 전반에 대해 식음료 점검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식품접객업소에 10개 반 35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 위생점검을 벌이는 한편 시민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일웅 복지건강국장은 “지역 식음료안전 추진센터 상황실 운영과 단계별 위생점검으로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수영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북구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응원 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3회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무대에 선 공연자들에게 환호를 보내며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양 백운산 4대 계곡·장흥 물축제 탐진강 전남도 '남도여행' 테마 7월 추천 관광지로

전남도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시원하게 빠져보는 남도여행'을 테마로, 광양 백운산 4대 계곡과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을 7월 추천 관광지로 소개했다.

광양 백운산 4대 계곡(성불·동곡·어치·금천)은 약 10km에 달하는 4개 능선이 남과 동으로 흘러내리는 곳이다. 여름 피서객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성불계곡은 봉강면 도솔봉과 형제봉 사이에서 발원, 백운산 4대 계곡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기암괴석 사이로 평평한

바위가 많이 흩어져 있어,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 속에서 더위를 피하기 제격이다. 동곡계곡은 백운산 계곡 중 가장 긴 계곡으로 길이가 10km에 이른다. 백운산 정상과 따라봉 사이 한재에서 발원해 광양을 동천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든다.

장흥 탐진강은 총 55km로 장흥담부터 장흥을 중심으로 지나 남해로 흘러간다. 전남 3대 강 중 하나이다. 여름이면 피라미와 은어를 볼 수 있다. 수영도 하며 여름더위를 식히는 장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문화, 상품·브랜드로 연결... 경제 엔진 만들것”

### 이병훈 부시장 기자간담회 “광주비엔날레 조직 개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일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시장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경제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 1년은 전국 최초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도입한 의미를 살려 민

선 7기 문화정책 10대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문화경제거버넌스 포럼을 구축해 문화와 경제분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화분야 성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 구축 ▲신한류 문화 확산 위한 케이팝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꼽았다.

경제분야 성과로는 ▲4년 일자리정책로드맵 수립 등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책 강화 등을 들었다.

이 부시장은 향후 광주 문화·경제분야 핵심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문화를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상품, 브랜드, 산업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경제 엔진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와 관련해서선 노사상생 인프라와 문화 확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 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구체적 과제로는 ▲광주 명장 제도 신규 도입 ▲국가적 용

복합 연구전담기구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유치 ▲경제자유구역 조성 ▲인공지능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 부시장은 '(재)광주비엔날레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고 세계 예술계 흐름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현재 사업 방향이 적절하지 등을 진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이용섭 광주시장 한국상하수도협회장 취임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제 11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상하수도 협회는 보편적 물 복지 실현과 물 산업 육성, 상하수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신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물 산

업 전반에 걸친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달 26일 한국상하수도협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협회장은 그동안 고건 전 서울시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허남식 전 부산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물 산

/김형호 기자 khh@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